

1. 시란?

마음 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

2. 시의 화자

• 시에서 말하는 이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세우는 대상이다.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고 한다. 화자는 어린아이, 남자, 여자 등의 사람일 수도 있고 딸기, 나무 등의 사물일 수도 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이 시의 화자는 엄마, 누나와 함께 강변에 살기를 바라는
어린 (12년)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화자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화자의 역할 >

시적 상황과 시적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를 전달한다.

시의 주제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화자에 따라 시의 내용과 주제, 분위기 등이 달라진다.

• 화자의 상황

화자가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즉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공간적·심리적 상황을 의미한다. 설정된 상황을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헤아리고 작품의 주제를 가늠할 수 있다.

예) 사랑을 느끼는 상황, 특정한 대상을 관찰하는 상황

나무들이 / 샤워하고 있다. //

저것봐 / 저것봐 //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강 거품이 /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 이 시의 화자는 나무들이 (작)을 피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 화자의 정서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을 정서라고 한다.

시어나 시구를 통해 드러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예) 긍정적 정서-기쁨, 즐거움, 안도감, 동경 등

부정적 정서-외로움, 한, 갈등, 안타까움 등

3. 말하는 이의 상황과 정서

	1연	2연
시간	(<u>저녁~밤</u>)	()
상황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도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u>엄마</u>)를 기다림 (<u>어린</u>) 시절의 '나'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빈방을 지키던 어린 시절을 (<u>생각</u>)하고 있음 (<u>성인</u>)이 된 '나'
정서	외로움, 무서움, 슬픔	슬픔, 안타까움

4. 표현상 특징

*부정적 시어 *개성적 비유 *감각적 심상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시어의 반복(변형) ⇒(<u>은유</u>)형성, 시의 분위기 조성	'엄마가 오지 않는 상황과 나의 외롭고 쓸쓸한 '나'의 마음을 강조함.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외로운 '나'의 처지를 '찬밥'에 빗댄	직유법 촉각적 심상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엄마의 지친 발소리(<u>청각적</u> 심상)을 배춧잎(<u>시각적</u> 심상)에 빗댄	직유법 공감각적 심상
고요히 빛소리	'나'의 외로움 고조시킴	청각적 심상
내 유년의 윗목	고단하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을 '윗목'에 비유	은유법

5. 주된 분위기와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간 엄마 - 해가 진 지 오래된 저녁 시간 - '찬밥'처럼 남겨진 '나' - 고요한 빛소리 	⇒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외로움, 무서움, 슬픔
---	---	-----------------------------

6. 말하는 이의 목소리와 그 효과

- 말하는 이 :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나'
- 특징 : ()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음

★★★ 효과 : 어린 시절의 외롭고 무서웠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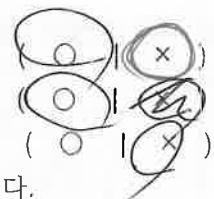
7. 주제 : 시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느끼는 슬픔

8. 작품 개관

갈래	현대시
제재	유년 시절의 기억
주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u>슬픔</u>)
특징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 비유를 써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8. 간단 퀴즈

- ① 이 시의 화자는 시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이다.
- ② '나'의 어머니는 열무를 팔러 시장에 가서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하였다.
- ③ '나'는 숙제가 너무 어려워서 천천히 숙제를 하였다.
- ④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나'의 처지를 (찬밥)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⑤ 엄마의 발소리를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하여, 엄마가 피곤하고 지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⑥ '나'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요한 빛소리)(이)라는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⑦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을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간인 (윗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1. 읽기의 가치

- 삶의 지혜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됨.
-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본 수단이 됨.
-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됨
- 바람직한 정서를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됨
- 앞 세대의 지식과 지혜를 전달 받고, 후대에 문화를 전승함으로써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2.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의 예

- 도서관이나 서점, 독서 관련 누리집을 자주 이용함.
- 독서 관련 신문 기사를 관심있게 봄.
- 여가 시간에 책을 즐겨 읽음.
-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함.
-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함.

수필 종류

	경수필	중수필
편지		
성경		

3. 수필에 대하여

수필? 글쓰기가 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 편지, 일기, 기행문 등이 있다.

- ①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 글쓰기가 체험하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
- ② 개성적인 글: 글쓰기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 (성격, 생각, 느낌)
- ③ 형식이 자유로운 글: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는 글
- ④ (비전문적)인 글: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글
- ⑤ (선반향)적인 글: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이 글감이 될 수 있는 글

4.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글의 짜임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산악반 활동을 함.
중간	중학교 3학년 때 도서반 활동을 하면서 읽은 (박지원) 소설들이 인생에 영향을 미침
끝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음.

5. 박지원 소설과 무협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협지	박지원의 소설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가 예스러움. • 내용(주인공이 실력을 쌓은 뒤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옴.)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외에는 기억나지 않음 • 한 두 번 읽고 나면 재미가 없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내용을 궁금하게 하고, 주인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 •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짐. • (문장)이 품위 있고 아름답게 느껴짐. •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듭.

6. 책을 보약에 비유한 이유

보약	책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줌.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줌.

↓

보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 책을 읽고 자신의 정신세계가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책'을 '보약'에 빗대어 표현함.

7. 책을 통로에 비유한 이유

통로	책
어느 곳에 닿을 수 있게 함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함.

↓

통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통로'에 빗대어 표현함.

8. 도서관 활동이 글쓰이에 미친 영향

- ① 박지원 소설을 읽으면서 고전의 가치를 깨달음.
- ② 도서관 활동에서 읽은 책 덕분에 소설가가 됨.
- ③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음.

9.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작품 개관

갈래	수필
제재	도서관에서의 읽기 (경험)
주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특징	① 중학교 때의 읽기 경험을 회상하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함. ②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매력을 느꼈던 경험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강조함. ③ (사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읽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10. 과제 ④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강한 먹을거리 녹차' 핵심 내용

- 녹차가 건강 식품인 이유 ①: 감기예방에 효과가 있음
- 녹차가 건강 식품인 이유 ②: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음
- 녹차를 마실 때 주의점 ①: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 녹차를 마실 때 주의점 ②: 잠자기 전엔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 녹차를 마실 때 주의점 ③: 빈혈이 심한 사람은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갈래	설명문
제재	녹차
주제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의 (기능)과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
특징	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함. ② 녹차를 '건강의 제왕'에 빗대어 표현함.

11. 제재 ㉠ '개 기르지 맙시다' 핵심 내용

- 개의 특성 ①: 사람과 다르게 가는 능력 등이 관심 X
- 개의 특성 ②: 무조건적 즉응에 대한 충성심.

• 사람들이 개를 버리는 이유: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X
 버려진 개의 처지: 거리의 개가 되거나 차에 치이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해 생을 마감한다.

• 글쓴이의 문제 제기: 개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 개를 키우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①: 401 입양전제를 더욱 취재하고 더욱 쉽게 버림
 개를 키우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②: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개를 키우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③: 아파트에서 못 키우면 다른 집을 찾을 사람이 키워야 한다.

갈래	수필
제재	개 기르기
주제	개를 기를 때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특징	①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남. ②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길러야 함을 단호한 어조로 말함.

13. '서당 일일 훈장이 된 김득신' 의 글의 짜임

처음	서당의 학동들에게 같은 글을 최소 (<u>10번</u>) 이상 반복해서 읽은 자신의 읽기 경험을 말해 주는 김득신
중간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글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어 꿈을 이룬 김득신
끝	하인과 있었던 (<u>약속</u>)을 말하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김득신
주제	읽기(다독)의 가치와 중요성
제재	김득신의 읽기 경험
특징	① 김득신의 읽기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김득신이 일일 서당 훈장이 된 상황을 설정하여 독자의 (<u>호기심</u>)을 유발함. ② 김득신과 학동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읽기(다독)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해 언급함.

14. 확인 문제 풀어보기 -다음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거나 O,X퀴즈를 풀어보시오.

<보기>			
무협지	<u>고전</u>	허생전	현대 소설

1. 글쓴이는 다른 아이들이 읽고 있는 (현대 소설)이 가볍게 느껴졌다.
2.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고전)의 가치를 깨달았다.
3. 글쓴이가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골라 읽은 것은 (허생전)이다.
4. 글쓴이는 (무협지)을/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었다.
5. 김득신은 자신의 집 이름을 억만 권에 달하는 여러 책을 읽은 집이라는 뜻으로 '억만재'라 지었다.
(O | X)
6. 김득신은 머리가 나빠 <백이전>을 한 번 읽고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O | X)
7. 김득신은 머리가 나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였다. (O | X)
8. 김득신은 머리가 나쁘다고 우울해하는 학동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O | X)

1. 소설의 (서술자)

-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 소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가가 창조한 허구적 인물임.

나 : 1인칭
x 나 : 2인칭
x 나 : 3인칭

2. 소설의 (시점)

-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함.
- 서술자의 위치와 시각(태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임.
- ①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위치하는 경우: 소설에 '나'가 등장함.

서술자가 주인공	서술자가 관찰자
<p>'나'=서술자=주인공</p> <p>'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함.</p> <p>주인공의 심리가 직접 드러남.</p> <p>주변 인물의 심리가 잘 드러나지 않음.</p>	<p>'나'=서술자=관찰자</p> <p>'나'가 다른 사람(주인공)의 이야기를 직접 함.</p> <p>주인공의 말과 행동만 표현함.</p> <p>주인공에 대한 관찰자의 판단이 드러남.</p>
<p>예)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내가 지난 날 그 노인에게 안겨준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했고, 그 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멋지게 해결했는지를 깨달았다.</p>	<p>예)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애해 주시던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p>

- ②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하는 경우: 소설에 '나'가 (등장하지 X)

서술자가 관찰자	서술자가 전지적
<p>서술자가 자신이 관찰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전달함.</p> <p>서술자의 태도가 가장 객관적임. 독자의 상상력이 많이 요구됨.</p>	<p>서술자=신과 같이 전지적인 위치</p> <p>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전달함.</p> <p>독자의 입장에서 상상력이 제한됨.</p>
<p>예)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 보았다. 물기가 전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p>	<p>예) 마침내 양반 집을 찾아가 환자를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니 양반은 몹시 기뻐하며 승낙했다.</p>

3. 중요 내용 메모

- ① 발단: 처음~p26의 6번째 줄 : 닭싸움을 붙이며 '나'를 괴롭히는 점순

■ 수탉의 외양 묘사

<p>점순네 수탉</p> <p>머리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김.</p>	<p>↔</p> <p>'나'의 집 수탉</p> <p>몸집이 작음</p>
<p>↓</p> <p>적극적인 점순이와 소심한 '나'의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 줌. 점순네와 '나'의 집의 형편 (차이)를 드러냄.</p>	

② 전개1: p26의 7번째줄~p29의 2번째 줄: '나'는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함.

- (26 날개질문) '나'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기 집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쪼여 (II)를 흘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 이 소설의 서술자 → 1인칭 주인공시점

나	·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 바짝 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 랫몸에 틀림 없을 것이다.
---	---



나의 생각과 생각이 잘 드러남.
점순이의 마음과 행동의 의도는 '나'의 관점에서 짐작하여 서술함.

■ 갈등의 시작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며 관심을 표현함.



생색내는 듯한 점순이의 말에 마음이 상한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자를 거절함.



점순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됨.

- (27 날개질문) '나'는 왜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받지 않았을까요?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점순이의 말에 (생색)이 상했기 때문이다.

마음

■ 서술자 '나'의 특성

'나'의 행동	'나'의 속마음
점순이가 감자를 내밀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밀어 버림.	점순이가 감자를 주면서 자기네 집이 잘사는 것을 생색내고 있음.



서술자 '나'의 특성
무뚝뚝하고 둔함. 아직 (<u>사랑</u>)의 감정에 눈뜨지 못함.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담긴 (<u>의도</u>)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28 날개질문) 점순이의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눈물까지 어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감자)를 주었는데 '나'가 단번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

호의가 거절당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 '나'가 감자를 받지 않아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 '나와 점순이의 처지

순채X '나'	(<u>소작인</u>)의 아들 점순이가 '나'의 집 닭을 괴롭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점순이와 붙어 다니면 안 됨.
점순	마름의 딸 '나'에 대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함.

- (28 날개질문) 어머니는 왜 '나'에게 점순이와 붙어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나요?

점순이는 (아름) 집 딸인데 '나'와 점순이가 붙어 다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농사 지을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전개2: p29의 3번째 줄~p31의 19번째 줄: 점순이는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나'에게 욕을 하며 괴롭힘.

■ '나'와 점순이의 대조적인 특징

'나'	점순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박하고 (순치)가 없음. •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악)하고 집요함. •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기도 함.

▶ 점순이는 사랑의 감정에 눈을 떠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한 데다가 소작인과 마름이라는 집안 관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이 때문에 '나'가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 (30 날개질문)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는데도 '나'는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서다. / 남의 집에 들어가 (겨집에)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④ 위기: p31의 20번째 줄~p33의 14번째 줄: '나'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뒤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붙이지만, 또다시 패함

■ '나'의 성격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카요)이 뺨친다는 말을 믿고 닭에게 고추장을 먹임.
닭싸움에서 진 것이 고추장을 덜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순진)함. 어수룩함.
→ 경청 ;

-(34 날개질문)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 놓고 그 앞에 앉아 호드기를 붙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를 약 올리기 위해서이다. /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⑤ 절정: p33의 15번째 줄~p35의 10번째 줄: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탉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수탉을 때려 죽임.

■ '나'의 심리변화

점순네 수탉을 죽이기 전

닭싸움을 붙여 놓고 태연하게 호드기를 부는 점순이를 목격함
빈사지경이 된 '나'의 닭을 봄.
약이 오름. 화가 남.



점순네 수탉을 죽인 뒤

점순이가 "누 짐 닭인데?"라며 '나'를 나무람.
무안함. (겁)이 남.

■ 점순이와 '나'의 갈등

점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가 (원망)스러움
닭싸움을 붙여 놓고 호드기를 붙여 '나'의 관심을 끌.



나

점순이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아채지 (못함).
죽을 지경에 이른 자신의 닭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수탉을 때려 죽임.

⑥ 결말: p35의 11번째 줄~p36: '나'와 점순이가 (동백꽃) 속에 파묻힘.

4. 인물의 성격

'나'	점순이
어수룩하고 눈치가 없음 우직하고 (순박) 함	적극적이고 (성숙) 함 당치고 씩씩함

5. 점순이의 애정 표현 방식

: 감자 건넌, '나'의 씨암탉 괴롭힘, '나'를 괴롭히고 욕함
 ⇒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나'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 (적극)적 성격

6. 닭싸움의 의미

- 점순이와 '나'의 (갈등)을 대신함
-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과 관심을 (감정)적으로 드러냄
- 점순이와 '나'의 갈등 (해소)의 계기로 작용함

7. 서술자 '나'의 특성

- 순진하고 어수룩하며 눈치가 없음
- 점순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함
- 독자의 (웃음)을 유발함

8. '동백꽃'의 의미

- '생강나무꽃'의 강원도 (지역) 방언.
- 결말 부분: '나'와 점순이의 애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냄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 조성함

9. '나와 점순이의 처지

'나'	점순이
- 소작인의 아들 - 점순이가 '나'의 집 닭을 괴롭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점순이와 붙어다니면 안됨	- 마름의 딸 - '나'에 대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함.

10. 작품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배경	시간: 1930년대 (봄) / 공간: 강원도 농촌 마을
주제	산골 소녀와 소년의 (사랑)
특징	①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높임. ②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냄. ③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 비속어 사용의 효과>

1. 작품의 사실성 향상
2. 해학적 분위기
3. 인물의 심리와 성격 묘사

3. 이 글에 드러난 갈등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 ① 점순이를 괴롭히는 '나'와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는 점순이의 갈등
- ② 신분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나'의 마음속 갈등
- ③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와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 채지 못한 '나'의 갈등
- ④ '나'를 점순이와 결혼시키려는 '나'의 부모님과 점순이를 싫어하는 '나' 사이의 갈등
- ⑤ 마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점순네와 소작인인 '나'의 집안 간의 갈등

4. 이 글의 서술자를 '나'로 설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바르게 묶은 것은?

- 어리숙한 나
- ㉠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 ㉡ 순수하고 순박한 느낌이 든다. ✓
 - ㉢ 점순이의 속마음을 자세히 알 수 있다. ✕
 - ㉣ '나'의 생각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5. '나'가 점순이가 건넨 감자를 거절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은 감자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 ② 점순이의 의도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 ③ 점순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 미안했기 때문이다.
- ④ 점순이가 생색을 낸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 ⑤ 점순이가 나를 후려 썰린 것에 대해 앙금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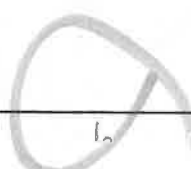
6. 감자를 주는 점순이의 행동을 통해 점순이의 속마음을 짐작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애정에 응답하기 위해 감자를 건넨 것 같아.
- ② '나'에게 감자를 주고 그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게 있었나 봐.
- ③ '나'의 형편이 어려우니 안쓰러운 마음에 챙겨 주고 싶었나 봐.
- ④ '나'에게 감자를 건네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나 봐.
- ⑤ 엄마가 '나'에게 감자를 나눠 주라고 시켜서 쭈뼛거리며 어쩔 수 없이 건네고 있어.

7. '감자'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등장인물의 심리와 관련지어 서술할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나를 향한 점순이의 관심, 애정을
드러낸다.



11. 글의 짜임

발단	점순이가 수탉끼리 닭싸움을 붙이며 '나'를 약 올림
전개1	'나'는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함
전개2	점순이는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나'에게 욕을 하며 괴롭힘
위기	'나'는 수탉에게 (고사)를 먹인 뒤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붙이지만, 또다시 패함
절정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탉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수탉을 때려 죽임.
결말	'나'와 점순이가 (동백꽃) 속에 파묻힘.

12. 점순이와 '나'의 갈등

'나'	점순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순이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알아채지 (못함). - 죽을 지경에 이른 자신의 닭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수탉을 때려 죽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가 (원망)스러움 - 닭싸움을 붙여 놓고 호드기를 붙여 '나'의 관심을 끌.

13. 동백꽃 구성의 특징

이 소설은 '나'의 집 수탉과 점순네 수탉이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하였다가 '나'가 나흘 전에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듯 (발단) 부분에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전개와 위기 부분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갈등이 일어난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절정) 부분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해소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갈등의 제시	갈등의 원인	갈등의 절정	(갈등)의 해소
현재	(과거)	현재	(현재)
->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과거와 현재가 연결됨.			

■ 문제 풀어보기

1.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은 봄이다. ✓
- ② 공간적 배경은 농촌이다. ✓
- ③ 어리숙한 소년이 이야기를 전달한다. ✓
- ④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역순행적 구조 (구상)
- ⑤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2. 이 소설의 등장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점순이는 신분이 다르다. ✓
- ② '나'는 지금 사는 마을의 토박이다. ✗
- ③ 점순이는 요새 들어 '나'를 괴롭히고 있다. ✓
- ④ '나'의 집은 점순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
- ⑤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